

#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적 수경연출기법\*

성            종            상\*\*

〈目      次〉	
I. 정원과 물 — 감각과 상징의 세계	연출 기법
II. 고산 원림에 있어서의 물	IV. 마무리
III. 고산 원림에서 발견되는 생태적 수경	

## I. 정원과 물 - 감각과 상징의 세계

물은 천태만상을 이룬다. 그 깊이는 이슬의 흔적에서부터 심연에 이른다.  
움직임은 스며 나옴에서 물보라, 흘러넘침, 분출, 급류, 폭포수에 까지 걸쳐 나타난다.  
소리는 재잘거림에서부터 노도의 울부짖음까지 이른다. (Simonds, 1999: 65)

동서고금을 떠나 물은 정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원에서 물은 꽃과 나무를 위한 관수라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 가득한 상징체이면서 심미적 대상이고 미기후 조절의 중요한 요소로도 사용되어 왔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 바람에 일렁이는 작은 물결, 짙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연못, 그 수면 아래 노니는 물고기, 물 위로 솟은 청아한 연꽃... 이들은 모두 물이 선사한 정원의 매력임에 틀림없다. 물이 이처럼 정원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그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생명수이어서만은 아니다. 꽃과 나무와 물고기를 키우고, 새와 나비와 동물을 불러 모으는 것이 생명수로서의 물이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눈과 발을 붙들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기분을 돋우는 것은 물의 상징적·감각적인 차원이 제공해 주는 효능이다. 솟아나서 흐르며 떨어지고 때로는 솟구치며 부서지기도 하다가 고요히 머무르고 스며드는 물의 다양한 변신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감상의 대상이면서, 바람과 햇빛이나 새나 물고기 등 다른 자연요소와 함께 어울려 정원감상의 주요 레파토리를 구성한다. 습하고 소리나고 빛과 색에 뻥 짝이며 반응하는 물의 감각적 속성은 사람의 정서에 직결되어져 이미지와 경험 감각을 조절한다. 물이 갖는 상징이나 의미는 이와 같은 물의 다양한 속성과 관련되어 형성된 2차적인 성징

\* 이 글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제 8회 전통생태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다.

동양에 있어서 물은 정신적 사유의 대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기에 동양의 산수화에서 그것은 흔히 인체의 피에 대비되어 왔다. 피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물은 자연을 살아 있게 만드는 생명수인 것이다(성종상, 2003: 99). 풍수지리에 있어서도 물은 산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기본요소(최창조, 1992: 55)이다. 신령한 지기의 근원인 생기는 산에 거쳐하는 것이 되되 그 생기를 운반하여 사람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은 물이니(최창조, 2000: 93),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것이다.

물 요소를 정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이 갖는 속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물이 지닌 다양한 역동성은 정원에 생기를 부여하고 정적 혹은 동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해 준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는 물의 감각적 차원이 빚어내는 또 다른 세계이다. 그리고 물이 갖는 상징체계를 통해 우리는 풍부하고 흥미로운, 정원 속 내러티브와 의미를 읽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맛본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적, 물리적, 상징적 속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물을 정원에 적절히 들여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장소가 지닌 특징과 그 정원에 담고자 하는 의미나 정신, 그리고 그 속에서 향유될 감각의 세계에 물 요소가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되도록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과 관련된 공학적 이슈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성패를 가름한다. 일반적으로 정원에 물 요소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원의 공급	물의 양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급원이 있는지? 수질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해주는 중요한 인자
방수시설	수공간의 바닥 또는 측면부를 통해 새어나가는 누수를 막을 방도 저면 차수/ 측면 차수
수문조절	홍수대비 유수량 조절 지형 레벨차에 따른 물 유입방안(중력에 의한 자연 유하 원칙)
수공간 유형	연못, 계류, 폭포, 분수 등
수공간 형태	(정/직)사각형, 원, 타원, 선형, 곡선형, 자연형 등
연출효과	그늘, 빛, 반영, 비산, 물결, 물소리 등
이용/용도	실용적/상징적: 명상, 수생식물, 물고기, 물놀이 등

## II. 고산원림에 있어서의 물

물은 고산 윤선도 원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물을 중시한 동양정원의 맥락<sup>1)</sup>과 상통하면서 풍수가인 고산<sup>2)</sup>의 탁월한 땅 읽기

1) 동양 3국의 전통정원에서 물이 중시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물 요소가 빠진 정원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편이 적합하다. 이는 중국 명나라 말기의 조원가 계성(計成: 1582- ?)

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가 조영한 원림 중 현재에도 유구가 남아있는 보길도 부용동이나 해남의 수정동, 문소동과 금쇄동은 모두 물이 중요한 정원구성요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보길도 부용동 원림의 주요 거점공간인 곡수당, 동천석실, 세연정에도 물은 경관연출이나 공간구성, 그리고 상징체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공통분모로 사용되고 있다. 계류변에 자리 잡아 연못을 중심으로 펼쳐진 곡수당이나 세연정, 그리고 수정동은 일종의 물을 주제로 한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산중턱과 정상부에 위치한 동천석실과 금쇄동도 물은 연못 — 石井, 石泉, 石潭(이상 동천석실); 석천, 상지/하지(이상 금쇄동) — 과 폭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세연정은 이용의 유형으로 보나 공간적 규모로 보나 대표적인 물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고산은 보길도에서 가장 큰 계곡의 개울이 바다로 빠져 나가는 길목에 살짝 비껴난 곳에다 연못을 파고 정자와 각종 대를 조성하여 휴식과 완상, 위락이 있는 즐거움의 정원(pleasure garden)으로 만든 것이다. 어려운 벼슬길과 고난에 찬 자신의 삶의 역경을 떨쳐 버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문학과 예술과 정신세계를 펼쳐내는 무대로 이용한 것이다. 이 점에서 세연정은 종합 위락공간이자 예술활동의 산실이고, 풍수상 허결의 비보장소이기도한 곳이다.

수정동 원림에서 물은 상하 두 곳의 연못과 계류, 그리고 폭포로 구성된다. 고산은 유역이 작아 물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계곡 상부에서 연못을 만들어 물을 모으고 이를 아래쪽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 위로 흘러 폭포를 연출하고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폭포 아래 지형을 이용한 보로 자연스러운 수공간을 만들어서 수정동내 주 거점인 인소정에서 부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수경으로 즐긴 것이다. 비록 이 곳이 자연 계곡으로서 (특히 우기에 는 분명히) 계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정원요소로 즐기기 위해서는 물을 모으는 장치와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연출하는 수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현재 유구에서 보이는 계류 주변의 제방들은 물을 원하는 곳으로 모아서 선형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유도장치로도 볼 수가 있다. 수정암 위쪽에서 커다랗게 휘어져 곡류를 이루면서 폭포로 이

이 저술한 정원이론서 〈園治〉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계성은 좋은 원림지로는 用水 및 水景 차원에서 물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산림 속에서의 원림 조영은 “깊이 들어가 수원을 찾아내고 그 물길을 원림터까지 끌어오며, 때로는 낮은 곳을 파 못이나 웅덩이를 만들어야 한다.(入奥疏源 就低鑿水)”라고 갈파하였다. 황기원(1996), “원야·상지론 연구(2): ‘산림지’를 중심으로”, 『환경논총』 34: 35-45, 성종상, 앞 논문, 98-100.

- 2) 고산 윤선도는 천문, 지리, 의학, 역학,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 조예가 깊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풍수학적 식견은 그가 찾아내어 원림으로 조영한 수정동, 문소동, 금쇄동, 그리고 부용동 등이 풍수이론의 실제 현장이라는 사실에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연화부수형의 형국을 지닌 보길도를 찾아낸 것에서부터 격자봉 주벽 내부터에다 자신의 주거처인 낙서재를 지은 것, 압승과 허결의 비보로서의 각각 동천석실과 조산을 마련한 것, 그리고 외수구 직사에 따른 허결의 비보로서의 세연정을 조성한 것 등을 보면 부용동 전체가 고산의 풍수적 안목이 집결된 대표적인 현장이라 할 만하다. 그 외에도 그가 스스로 고른 것으로 알려진 문소동 위 고산묘소도 그의 음택풍수 안목이 잘 나타난 곳으로 평가된다. 그러기에 고산 사후 그를 높이 칭송한 정조는 그를 가리켜 조선조에서 무학대사 이후 최고의 풍수가로 칭송하였다. 성종상, 앞 논문 91-94, 문영오(2001), “고산 풍수사상 현장화의 양태 고구”, 『고산문학상론』, 태학사, 503-528.

어지는 것도 고산의 교묘한 물 연출의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곳 수정동에서 폭포는 수정암이라는 정원의 중심요소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공간적 스케일감을 구체화시키는 훌륭한 감각형성 장치라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있었던 커다란 바위는 그것을 타고 넘쳐흐르는 물(폭포)이 이름(수정림)을 가짐에 따라 수정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정원감상의 주무대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수정동의 고정요소라 할 수 있는 바위는 공감각적 연출요소로 추가된 폭포를 통해서 비로소 정원의 주요구성요소로서의 위상과 의미를 제대로 갖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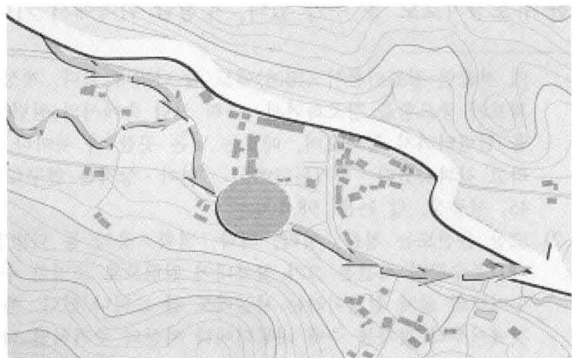
### Ⅲ. 고산 원림에서 발견되는 생태적 수경연출 기법

#### 1. 수공간 조성입지: 풍수와 수리학적 사고의 산물

세연정은 보길도 주산 격자봉에서 남음계로 흘러든 계곡물이 흘러 바다로 빠져나가는 개울의 본류에서 벗어난 지류에 조성되어있다. 섬 지형의 특성상 짧고 급경사를 이루는 본류는 홍수시의 유속이 빨라 침식과 퇴적활동이 왕성하여 수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안정되게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마련이다. 그에 비해 본류에서 분지된 작은 지류는 비교적 작고 완만한 유역을 지니고 있어 한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다가 세연정 바로 위에는 샘이 있어서 안정적인 유량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이 샘은 상류계곡에서 지하로 스며든 계곡수가 복류되어 용출되는 것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을 세연지에 공급해 주고 있다. 평상시에는 지류와 샘이 주요 급수원이다가 갈수기에 지류가 말라 건천이 되어도 최소한의 수원이 샘으로부터 공급되는 구조인 셈이다. 세연정은 이렇게 안정된 수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빼어난 경치를 구비한 곳을 찾아내어 고산이 자신의 공간조형 감각을 마음껏 펼쳐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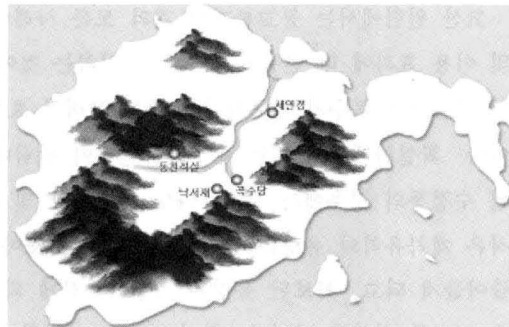


〈그림 1〉 샘 — 세연지의 급수원



〈그림 2〉 세연정 — 전체 유역의 본류에서 벗어난 지류에 위치한다. 이세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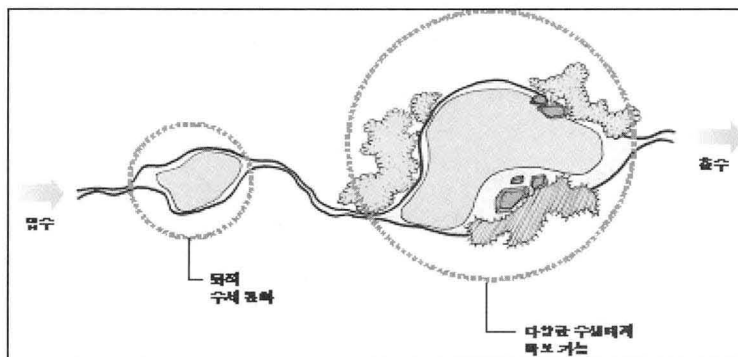
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연정의 입지 위치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는 풍수지리적 상징체계 속에서 해석 가능하다. 외수구에 해당되는 지점에다 직사되는 물 흐름을 막아 잠시 머물게 하여 기를 응축시키기 위해 조성한 비보책이 세연지라는 것이다.<sup>3)</sup>



## 2. 복수의 연못

자연형의 수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단일의 연못보다는 둘 이상의 연못이 보다 바람직하다<sup>4)</sup>는 사실이다. 복수로 연못을 조성하게 되면 단일 연못에 비해 훨씬 다양한 수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류에 의한 물질의 운반과 퇴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둘 이상의 연못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에는 상부연못이 퇴적과 유속완화를 담당함으로써 하부연못은 생태적, 또는 경관적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수의 흐름과 정체, 유량의 확보 및 조절이라는 차원에서 복수의 연못체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그림 3〉 외수구 비보로서의 세연정



〈그림 4〉 2개의 연못(two ponds system). 이세영 그림

3) “보길도에 있어서 고산의 주 거처는 낙서재이다. 고산은 낙서재를 이상적인 양택으로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풍수적 방편을 마련하였다. 낙서재에서 볼 때 세연지는 북방에 위치한다. 따라서 백호방에서 발원한 물은 세연지 앞에서 남음계와 합금수를 이루면서 곧장 바다로 직사되고 있다. 고산은 백호방에서 발원해서 직사한 물과 청룡방에서 흐르는 남음계수와 만나기 직전에 세연지와 물막이둑을 설치함으로써 직사되는 물을 잠시 머무르게하고 그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기를 응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공 못을 조성하였다”고 문영오는 설명한다. 문영오(2001: 513-514)

4) Two ponds system (Hough Woodland Naylor Dance Limited(1995), Restoring Natural Habitats. p.156.

고산 원림에서는 공교롭게도 거의 모든 사례에서 복수의 연못체계가 발견된다. 아마도 경관 및 이용 효과에 더 연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과적으로 고산 원림에서 복수의 연못체계가 주는 생태적 효용을 위시한 다양한 효과가 발휘된 것만은 사실이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연못이 원림내 일정거리를 두고 상지와 하지로 나누어 조성된 수정동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유량확보 및 유수흐름의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작은 계곡유역의 유량은 일단 상부 연못에 모이지면서 유속이 완화되어 하류부의 침식 우려가 줄어들게 되고, 확보된 유량은 조절가능하게 되어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흘러 보내 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동서 약 20m, 남북 약 9m 정도 규모인 상지는 평상시에 물을 담아 정적 관조와 완상의 기능을 하다가 갈수기나 필요시에는 아래로 흘러 보내서 수경, 특히 폭포를 연출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연못이 나란히 위치한 세연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류를 보로 막아 조성한 계담(溪潭)은 자연스러운 기존 하천지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에 반해 하천 유수 방향에 어긋난 방향으로 내밀어 조성된 회수담(回水潭)은 형태부터 방지(方池)로서 계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원 내 주거점인 세연정이 이들 두 개의 연못 한 중간에 놓여있다는 사실에서 그 둘 간의 다른 분위기와 경관이 의도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상지에 해당되는 계담이 유속을 완화시키고 판석보를 통해 저수한 물을 회수담으로 돌려 보내주는 방식은 구체적 공간배열만 다를 뿐 수정동의 상하지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수담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그림자나 수생식물 등 물의 다양한 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외에 곡수당의 크기와 형상이 다른 두 개의 방지, 금쇄동의 잇대어져 있는 상지와 하지 등도 단일수경공간과는 다른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 3. 저면차수 장치로서의 노출암반

고산 원림 수경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두가 자연암반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그것은 거대한 암벽을 이용한 폭포와 편평한 암반을 저면으로 하여 조성된 연못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모두 물과 대비되는 바위를 통하여 물이 지닌 속성을 제대로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감상의 효과를 높여 주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특히 암반을 저면으로 하여 연못을 조성할 경우에는 차수효과라는 공학적 이점까지도 얻을 수 있다. 편평한 암반이 형성해주는 불투수층을 활용하면 물을 모으고 저장하기가 한결 용이해지는 것이다. 통상 한국전통의 정원에서 연못바닥이 진흙이나 강회를 사용한 다짐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못 바닥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곡수당의 상지나 하지, 그리고 세연지는 그러한 인위적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훌륭한 차수장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바닥이 자연 암반으로 된 연못은 진흙으로 된 경우보다 수질, 곧 물의 탁도도 훨씬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두어 자 깊이의 세연지는 맑디맑아 푸른 빛을 띠고 있으면서 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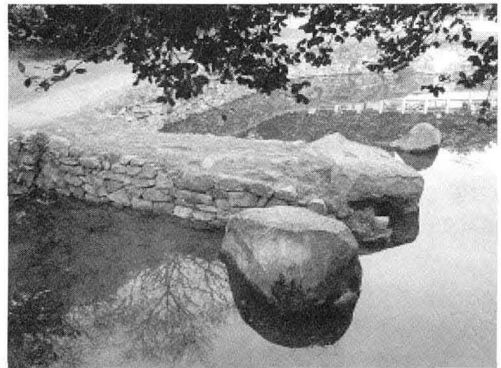


〈그림 5〉 곡수당 상지의 바닥 — 하나의 거대한 암반 〈그림 6〉 세연지의 바닥 역시 커다란 암반이다.

위로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전한다.<sup>5)</sup>

#### 4. 수류조절장치로서의 S자형 수로와 돌출수제

세연지의 상류 입수부에 해당되는 수로는 크게 두 번 방향을 꺾어서 세연지로 입수된다. 평면상으로 보아 완전한 S자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상류로부터 급하게 흘러 들어오는 계류의 에너지를 경감시키고 유속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구간 내에는 돌출수제로 보이는 제방구조물도 위치하고 있다. 비록 세연지가 위치한 곳이 본류가 아닌 지류에 위치하고 있지만 홍수시 급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S자형 수로와 돌출수제는 세연지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못 속에 내버려둔 듯 흩어져 있는 칠암을 비롯한 자연석들도 상징과 경관 요소이면서 그 자체로 물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세연지의 수면이 항상 안정되고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고산은 무용수의 춤과 채색 옷 입은 童男들의 현란한 색채와 움직임이 물 속 그림자와 함께 즐길<sup>6)</sup>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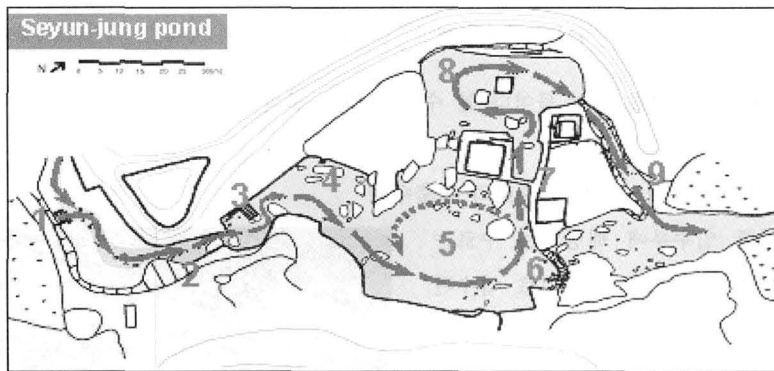
〈그림 7〉 세연정 상류측 계담의 돌출수제

5) 윤위, 『보길도지』 세연정편. 그러나 지금은 암반 위에 토사가 퇴적되고 그에 따라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어 윤위가 묘사한 당시의 정경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 보길도지에는 고산이 세연정에 앉아서 옥소대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무희와 채색 옷 입은 동남들이 배를 타며 노래하는 모습을 물에 비쳐지는 모습과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5. 정교한 과학적 수처리 기법: 판석보, 오입삼출(五入三出), 고입저출(高入底出)

세연정에서 수경은 기존 계류에 보를 막아 만든 계담과 이 물을 돌려서 만든 회수담으로 구성된다. 정자나 대를 제외하고 보면 기존 자연에 가한 유일한 인공시설이라 할 수 있는 보와 회수담에는 고산의 독창적인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놀라운 기법이 숨겨져 있다. 계류를 가로막은 판석보는, 현지에서는 굴뚝다리라고도 불리는데 넓고 편평한 돌로 만들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구조는 양쪽에 1-2m 크기의 판석을 폭 약 2.5m, 높이 약 1m 정도로 벽처럼 견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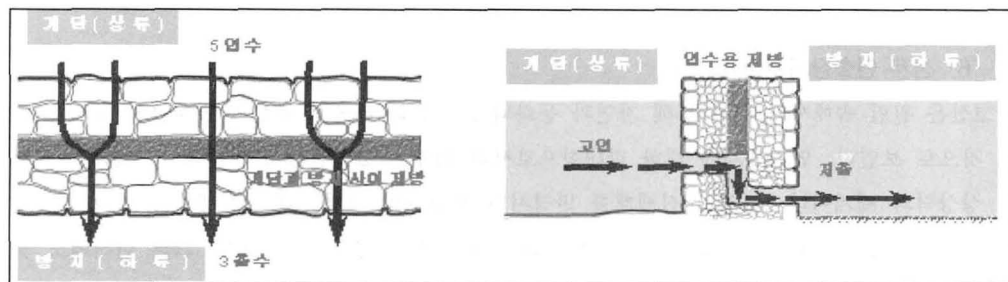


〈그림 8〉 세연정의 물 흐름 조절장치 — 샘(1), S자형 수로(2), 돌출수제(3), 판석보(6), 그리고 기존 자연석으로 연출한 칠암(4). 그림 이세영



〈그림 9〉 초승달 모양의 판석보





〈그림 10〉 5입3출과 고입저출 — 방지 제방에 적용된 교묘한 입수기법. 그림 이세영

개 세우고 그 안에 강회를 채워서<sup>7)</sup>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 다시 판석으로 위 뚜껑을 덮었다. 판석들간의 이음은 ‘『’ 형과 ‘』’ 형으로 연결부분을 파내어 결합시키고 은정(隱釘) 홈<sup>8)</sup>과 축을 박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계원공간 속의 돌다리가 되어 아름다운 조형을 이루고, 폭우가 와서 개울의 물이 넘칠 때는 폭포가 되었다<sup>9)</sup>고 한다. 판석보는 전체 길이 약 11m로 가운데가 들어간 활처럼 굽은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는 그가 한 달 동안 조수간만의 들고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한 후 축조하였다는 진도 굴포리의 초승달형 방조제와 유사한 형태로서 유체역학상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다.<sup>10)</sup> 회수담으로 물을 유입시키는 수구는 이른바 ‘5입3출’(五入三出)과 고입저출(高入底出)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수압차이로 물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기능과 함께 수심 아래 바다 쪽으로 물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인공연못의 수면을 고요하게 유지시켜주는 교묘한 기법이다.<sup>11)</sup> 이 같은 장치를 통해 고산은 연못의 수면을 잠잠하게 유지시킨 후 그 곳에 투영되는 그림자를 즐겼던 것이다. 물소리를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적막감은 압축되고 배가된다. 그 적막함 속에서 물 속에 아롱거리며 비쳐지는 무희의 춤새는 보는 이를 몽환적인 경지, 곧 몰아의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거친 풍량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섬 속에서 맛보는 그 같은 초월의 경지는, 펄박과 고초 가득한 인간세상과 대비되어 고산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탈속적 세계로 빠져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7) 이에 대해서 신영훈은 물 속에서 굳지 않는 강회대신에 삼회토로 채웠거나 오히려 속을 비워두었을 것이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목격한 현지의 강종철 윤고산 유적 보존회회장도 오랜 세월로 퇴적된 모래 등이 더러 쌓여있었을 뿐 비워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신영훈(1999), 보길도와 윤선도, p. 86.

8) 은정(隱釘) 홈이란 쇠나 돌로 만든 정을 박아 넣기 위해 판 구멍을 말하는 데 아래 위의 돌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돌 속에 들어가 바깥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은정이라 한 것으로 기록상 삼국시대 이래 석조물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영훈 위 책, p. 86.

9) 정재훈(1990), 보길도 부용동 원림, 열화당, p. 38. 정재훈은 이 같이 기발한 석조보는 우리나라 조원 유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것이라 말한다.

10) 성종상, 앞의 논문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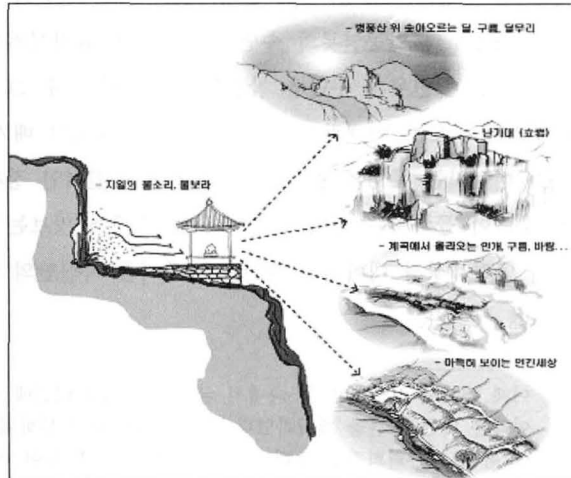
11) 상계서, p. 12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재훈(1990: 31-36)과 신영훈(1999: 103-107) 참조.

## 6. 선계 연출장치로서의 폭포

고산은 원림 속에서의 삶을 통해 자연과 동화되고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펼쳐 나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세계에 대한 반대향으로서의 仙界는 고산원림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상력의 세계이다. 그의 정신세계를 반영시킨 보길도의 지명들이 신선세계의 이미지로 부각된 이상적 삶의 희원의 현장이고 命名化<sup>12)</sup>라는 사실이 그 좋은 사례이다. 그의 한시에도 곳곳에서 蓬萊, 群仙, 白玉樓, 石室 등의 도교적 색채 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선적 삶의 회구와 실천을 노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수정동에서 선계는 수정암과 그 아래의 넓은 반석인 요석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 특별히 달밤에 요석암에 앉아 수정암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감상하는 구도인 것이다. 이 때에 수정암에서 떨어지는 폭포, 수정령은 그러한 선계를 실감나게 해주는 공감각적 연출장치가 된다. 여름밤 교묘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달을 쳐다보며 즐기는 적막한 심사에, 옆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물안개와 소리는 세상사를 벗어난 신선의 경지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효적절한 효과장치인 것이다. 금쇄동의 지일(至一)과 휘수정(揮手亭)에서도 이와 꼭 같은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통상의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운 단애 중간에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정자, 휘수정을 지어 앞으로는 위쪽 단애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감상하고 뒤로는 자신이 떠난 마을, 곧 인간세계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내려다보는 마을은



〈그림 11〉 수정령과 요석암



〈그림 12〉 지일의 선계 연출구도(성종상 앞 논문에서 인용)

12) 문영오(2001), pp. 407-408.

때로는 계곡에 깔린 안개나 구름에 가려지거나, 폭포수에서 나온 물보라나 물안개 등으로 인해 아스라이 멀어져 보인다. 그에 반하여 맑은 편 병풍산 위로 뜬 달과 별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정겨워질 수가 있다. 공간적으로나 심상적으로 이미 인간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 곧 선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바위(단애, 반석)와 폭포 등으로 이루어진 빼어난 경치가 仙境을 의미한다면 단애위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그 선경을 실감나게 연출해주는 효과장치인 것이다. 폭포의 물소리가 인간세상을 상징하는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지워주고, 물보라는 산 아래 인간 세계를 더욱 아득하게 해주며, 폭포수의 냉기와 청량감은 속세를 떠난 상쾌한 기분을 배가시켜 주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폭포수는 인간세상을 떠나 仙界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케 해주는 공감각적인 보조장치인 셈이다.

#### Ⅳ. 마무리

한국 전통정원에서 생태적인 특질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애당초 한국의 정원이 자연에 더 가까이 가고자했던 작정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연유된 것이기에 그러하고, 정원 조성 행위에 앞서 대상이 되는 장소의 자연을 읽고 친숙해지려는 노력부터 선행해온 것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특별히 산수간 경승지를 찾아 조영한 고산 윤선도의 정원(원림)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고산 원림에서 물은 돌(바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것은 五友歌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그 자신이 물과 바위를 귀하게 생각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이 둘이 자신이 좋아한 산수간에 경승지를 구성하는 주요소이기에 더욱 자연스러운 귀착이었을 것이다.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펼쳐놓은 경승지를 찾아서 만드는 원림은 이 둘을 자신의 사유체계와 미적 감각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는 물의 감각적 차원 이외에 기존 수문체계 내에서 수원의 확보와 저류, 그리고 수류의 조절 등에서 생태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기법이 다양하게 구사되어 있다. 세연정 수공간에 적용된 생태적 기법들은 고산의 무용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 활동을 차원 높게 승화시켜주는 토대가 되었다. 교묘한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된 원림의 현장 속 예술 체험은 고스란히 수준높은 시문학으로 표출되었다. 고산은 해박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현장읽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적,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생태와 예술이 결합된 독창적인 수경을 원림에다 연출해 내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마음껏 꽃 피웠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 속으로 통합되어진 물을 고산은 소중한 다섯 벗 중 하나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치하하고 있다.

구름빛치조타흐나검기룰조로흐다  
 바람소리뭇다흐나그칠적이하노매라

조코도그출늪업기논물뿐인가호노라  
〈五友歌〉중 「水」

인용문헌

John O. Simonds(1999), *Landscape Architecture*, 3rd ed. McGraw-Hill.

Chip Sullivan(2002), *Gardens and Climate*. McGraw-Hill.

Hough Woodland Naylor Dance Limited(1995), *Restoring Natural Habitats*.

「孤山遺稿」

김진성 외(1996), “고산 윤선도 해남 수정동정원의 공간구성연구 (Ⅰ)(Ⅱ)”, 『한국정원학회지』 14(2), 17(4).

문영오(2001), 「고산문학상론」, 태학사.

박준규(1997),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중앙M&B.

신영훈(1999), 「보길도와 윤선도」, 조선일보사.

정재훈(1990), 「보길도 부용동 원림」, 열화당.

최진원(1996), “산중신곡과 금쇄동기의 관계”,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최창조편역(1992), 「터잡기의 예술」, 민음사.

황기원(1996), “원야·상지론 연구(2): ‘산림지’를 중심으로”, 『환경논총』 34: 35-45.

최창조(2000),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성종상(2003),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한국건축문화연구소(1999), 「윤선도유적 및 현산고성 학술연구보고서」, 해남군.

해남문화연구원(1996), 「고산문학 현장조사 보고서」, 고산문학대축제총서 제1집.